

배달 도중 분만 도운 택배기사



▲ 생후 4일 된 아기를 안고 있는 라이언. 사진=thesun.co.uk

한 택배기사가 배달 도중 아이의 출산을 도와 화제다.

영국 햄스셔주 워털루빌에서 택배 일을 하고 있는 페리 라이언(29)은 최근 배달을 하다 엄청난 비명소리를 들었다. 무슨 일이 있음을 직감한 그는 비명소리가 난 곳으로 달려갔다. 그곳에는 만삭의 임신부가 쓰러져 있었다. 이미 양수가 터져 출산이 임박한 산모는 진통을 호소했다.

라이언은 즉시 구조 신고를 하고 교환원을 통해 조산사 지시를 받으며 산모를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문제는 이민자인 산모가 영어에서 틀렸고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집으로 달려온 산모의 남편 샤프 역시 영어가 서툴렀다는 점이다.

이에 라이언은 배달이 밀렸음에도 자리를 뜨지 않고 수화기 너머 조산사의 지시를 산모의 남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주었다. 라이언의 도움 덕분에 산모는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다.

라이언은 “나도, 아기 아빠도 둘 다 뭘 하고 있는 건지 전혀 모른 채 아기를 받았다. 일이 잘못됐다면 어땠는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산모와 아기를 구급대에 인계한 다음에야 밀린 배달에 나섰다.

샤프는 “집에 가보니 아내 옆에 우리 집에 물건을 배달해 주는 택배기사가 있었다. 나 혼자서는 아기를 받을 수도, 구급차를 부를 수도 없었는데 그가 우리를 도와줬다. 그 은혜에 어떻게든 보답하겠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인공수정으로 낳은 아들 “친자 아니야”

러시아 첼랴빈스크 출신의 올가 알료키나(33)는 2018년, 정부가 운영하는 첼랴빈스크의 한 난임센터를 찾아 임신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당시 알료키나와 남편은 병원에서 난자와 정자를 채취해 배아를 만들었고, 임신에 성공했다. 그녀는 2018년 11월, 예정일보다 9주 빨리 아들 데니스를 낳았다. 문제는 병원 문을 나서기 직전에 발생했다.



▲ 데니스와 알료키나. 사진=portsmouth.co.uk

의료진은 퇴원하는 부부에게 신생아의 혈액형이 A형이라고 알려줬다. 이는 알료키나와 남편 사이에서는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었다. 3개월 후 이들 부부는 친자 확인 검사했고 의료진으로부터 “아기의 친부모가 아니다.”라는 통보를 받았다.

알료키나와는 “하루 종일 울기만 했다.”면서 “배아

를 확인하는 날, 같은 병동에서 한 여성을 만났었다. 몇 마디 주고받았지만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아들의 친모일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 대해 언급했다.

알료키나 부부는 병원 측이 배아를 잘못 이식해 벌어진 일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병원 측은 “아이를 고아원에 맡기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지만 알료키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알료키나는 “나는 데니스를 내 아이로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두 살이 된 데니스는 오래도록 내 아이로 자랄 것이다. 다만 데니스의 친부모도, 어딘가에 살고 있을 내 친자식도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병원 측은 알료키나 부부에게 한화로 약 4,800만 원의 보상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여자축구 MVP부상 냄비 세트 논란

여자축구 강국 파라과이에서 한 여자축구클럽이 패인 마초 논란에 휘말렸다.

파라과이의 여자축구클럽 올림피아는 최근 경기가 끝난 후 한 장의 사진을 클럽 공식 SNS 계정에 올렸다. 사진의 주인공은 올림피아의 스타플레이어이자 파라과이 여자축구 국가대표이기도 한 보가린이며, 보가린이 뛰어난 활약으로 오늘 경기의 MVP로 선정됐다”면서 팬들에게 응원과 축하를 부탁했다.



▲ 사진= Instagram/clubolimpiafeme

하지만 사진엔 악플이 쇄도했다. 보가린이 부상당한 냄비 세트 때문이었다.

한 네티즌은 “축구는 남성들의 운동이다. 그러니 여자는 부엌이나 지키라는 뜻이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여자축구 선수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준 것과 다를 게 뭐냐, 당장 사과하라!”고 했다. 냄비 세트가 젠더 갈등의 양상으로까지 번진 자 결국 클럽은 해명에 나섰다.

부상을 제공한 브라질의 유명 주방용품 브랜드 트라몬티나는 파라과이 여자축구리그의 공식 스폰서로 이 리그의 발전을 위해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기업이었다.

올림피아는 “트라몬티나가 자사의 대표 상품을 부상으로 주다 보니 보가린이 냄비 세트를 받게 된 것”이라면서 “여자축구를 비하하거나 여자선수에게 모욕을 주려는 의도는 절대 없었다.”고 해명했다.

보가린은 “선물로 받은 냄비세트를 어머니께 드렸더니 매우 좋아하셨다.”면서 “불필요한 논란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프리미어 공인세무 그룹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예약 후 방문
상담 가능

대표 세무사
이세진 (Skyler S. Lee)
공인세무사 (E.A.)
(전) 한국 삼일회계법인/ PWC 근무

PREMIER
TAX
GROUP

(714)530-0030
4128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3

(714)530-2033
8942 Garden Grove Blvd. #203
Garden Grove, CA 92844

각종 세금 관련 상담 및 문의
info@isemusa.com
taxcapital@gmail.com